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 光州日報

www.dakajob.com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VIP No.1 결혼정보회사·막스클럽  
 대표이사 박정현

## 선거문화 미숙하다

## 여전한 후진성

"50만원 현금받은 교회 2,500만원 내야"

5·31 지방선거  
**D-50**

# 민주적 절차 뒤편 '낙하산 공천'

### 공무원들 집단 입당 등 선거개입 여전 시민 참여 '배심원제'도 조직동원 폐해

앞으로 4년 동안 광주·전남 지방살림을 맡을 선장을 뽑는 5·31 지방선거가 11일로 꼭 50일 남게 된다. 주요 정당들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 선거문화의 구태는 여전히 재연되고 있다.

광주일보보는 5·31 지방선거 D-50일을 앞두고 3회에 걸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정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50배 과태료 '오! 하나님'

### 화순선관위, 수사 의뢰

'교회 현금도 잘못 받았다' 5·31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내 교회 3곳에 수십만원의 현금과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광주지검에 수사의뢰됐다. 선관위는 검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찬조금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도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교회에 신도 등 등록된 사람이 현금을 내는 것은 상관 없으나 신도가 아닌 경우 기부행위제한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후보자가 신도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기부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설 선물로 술을 제공한 것으로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화순을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A교회 한마음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찬조금 50만원을 제공하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교회를 찾아 기도현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낸 혐의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지방선거가 하향식 공천이라는 중앙정치 그늘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며, 돈·조직 선거 약속 또한 되풀이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당원과 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상향식공천을 이번 선거의 목표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하향식 공천이 난무했다.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갖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무너진 상향식 공천=광주·전남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논란거리

는 전락공천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전락공천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광주시장 경선방법을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채 전락공천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 서·북·광산구청장 후보를 전락공천, 탈락한 기존 후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전락공천지역·방법·공천자 등 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는 것. 선거 전문가들은 본선거가 2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우세와 열세를 구분한



**"왕인박사 일본 가오"**  
 9일 벚꽃이 흐드러진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 왕인로~상대포 일원에서 열린 2006 왕인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왕인박사의 일본행을 재연하고 있다. 지난 8일 시작된 축제는 11일까지 왕인박사 유적지 등에서 계속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신안 비금농협 게르마늄시금치 '섬초' 100억원 '대박'

신안군 비금도 특산물인 게르마늄 시금치 '섬초'가 비금농협에서 유통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연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1개 단위농협에서 쌀을 제외하고 1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전국에서 '섬초'가 처음이다.

비금농협이 특산 시금치를 '섬초'로 상표 등록을 하기 전인 1996년까지는 연 매출액이 30억~4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상표가 알려지면서 1997년부터는 70억 원대로 뛰어올랐고, 올해엔 지난 6월까지 100억1천200만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지금은 전국의 모든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이 '섬초'를 취급할 정도로 '유명상품'가 됐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더욱 인기가 높은 섬초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웰빙' 추세에 맞춰 매년 9월과

중할 때부터 이듬해 4월 출하할 때까지 아무런 농약도 뿌리지 않는다는 점이 입소문으로 알려진 결과다.

'섬초'가 거둔 성공은 '시금치 자체의 뛰어난 맛과 신선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섬초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일반 시금치와는 달리 게르마늄이 함유된 황토밭에서 눈과 비, 해풍을 맞고 자라 신선한 상태가 일주일이나 지속되는 데다 당도도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장점들이 어우러지면서 '섬초'는 15kg 들이 한 상자에 평균 3만 원대의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일반 시금치의 갑절이 넘는 가격이다. 이에 따라 이곳 1천300여 농가도 매년 시금치 재배만으로 농가당 1천만~6천여 만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鄭회장父子 사법처리 강력시사

### 검찰, 빠르면 17일께 소환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사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9일 브리핑에서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하면 대책이 있는냐는 질문에 "조사해 봐야 하지만 정 회장이 출국해 있을 때도 '지장이 없

## 여야 '총리 인사청문회' 합의 실패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인사청문회가 늦어도 이번 주 중 실시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

후원회원 혜택 5.68% 즉시반환 진행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새마을 창간 50주년 기념  
**전남과학대학**  
 http://www.jch.ac.kr  
 ▶ 상담전화 058-9251 / 1,000-360-3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總 物 價 情 報  
 http://www.kpi.or.kr  
 ▶ 상담전화 02-777-7300 / 1,000-360-3000

Enjoy the Quality **남양유업**

## 똥배가 문제다? 장(腸)이 문제다!

### 쾌변의 약속 - 불가리스 프리임

똥배없이 날씬한 몸매의 기본은 쾌변이겠죠?  
 쾌변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불가리스'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명선과 입소문을 통해 확인된 쾌변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맛을 희생낸 제품은 많지만, 불가리스가 장(腸)발효유 판매 1위를 지켜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특별한 맛** : 발효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락티스(유산균)의 시너지 효과로 부드러운 쾌변을 유도합니다.
- 기능성 성분** : 기능성 유산균, 차아산화철, 이소플라본, 베타카로틴 등 고기능성 영양이 풍부합니다.
- 실용적 편의** : 간편하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맛과 향이 좋습니다.

▶ 판매처 :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전국 주요 유통처에 있습니다.

www.namyangju.com